

초고령사회의 그림자

오는 2047년 5가구 중 2가구 '나홀로 산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오는 2047년에는 5가구 중 2가구가 홀로 사는 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 2017~2047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58만 3000가구였던 1인가구 수는 30년 뒤인 2047년 832만가구로 273만7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2017년 총가구 수는 1967만가구로 이 중 28.5%가 1인가구였는데 2047년에는 전체 가구(2265만가구) 중 37.3%가 1인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5가구 중 2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인 셈이다.

이처럼 1인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인구고령화가 꼽힌다.

2017년까지만 해도 1인가구 중 30대 비중이



인가구가 늘지만 부부가 떨어져 사는 분거가구가 많아지면서 남성 1인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여성 1인가구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0대의 1인가구 전망을 보면 남성은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1인가구 17년 558만 →47년 832만

1인가구 비중 男↑·女↓...기러기 아빠 증가 영향 고령층 분거 늘어

17.4%(97만4000가구)로 가장 컸지만 2047년에는 1인가구 중 21.8%가 70세 이상 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가구는 2017년 전체 가구의 24.1%(134만7000가구)였지만 2047년에는 48.7%(405만1000가구)로 절반 수준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성별 1인가구 수 변화를 보면 남성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278만1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49.8% 차지했는데, 2047년에는 418만6000가구로 늘어나면서 비중도 50.3%로 차츰을 전망이다. 여성의 경우도 1인가구 수가 2017년 280만2000가구에서 2047년 413만4000가구로 늘어나지만 비중은 50.2%에서 49.7%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남녀 모두 고령층에서는 1

2017년 52만2000가구에서 2047년 81만8000가구로 늘어나지만 여성은 2017년 42만3000가구에서 2047년 38만4000가구로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연령만 놓고 보면 남성 1인가구는 2017년 35만1000가구에서 2047년 145만5000가구로 늘고, 여성도 2017년 99만6000가구에서 259만6000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추세적으로 보면 결혼 후 떨어져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여러 이유로 가족과 따로 사는 기러기 아빠가 늘어나는 영향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1

2047년 '가족' 사라지고 '1인가구'만 남는다

저출산·고령화로 28년 뒤 4인가구 비중 7%



2047년 한국사회에서 '가족(家族)의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로 나혼자 살거나 고령 부부만으로 이뤄진 1·2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의 비율은 10가구 중 1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어 가족이란 개념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47년 장래가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가구는 2017년 1967만1000가구에서 2040년 2265만1000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8년 뒤인 2047년 가구 수는 2230만3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17년 2.48명에서 점차 감소해 2047년 2.03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으로 총인구가 줄면서 가구원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 부부의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615만가구로 전체 31.4%를 차지했지만 2047년에는 363만8000가구로 전체의 16.3%에 불과할 전망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가구가 10가구 중 2가구가 채 안되는 셈이다.

반면 1인가구는 같은 기간 558만3000가구에서 832만가구로 증가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서 37.3%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부만 사는 2인 가구도 309만3000가구(15.8%)에서 479만4000가구(2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가구유형의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점차 결혼에 인식이 바뀌면서 홀로사는 인구가 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한편 2인 가구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부만 같이 사는 고령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원수로 보면 1~2인가구 비중은 2017년 55.2%에서 2047년 7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가 37.3%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2인 가구가 35%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과거 한국 사회의 대표적 가구원 수를 구성했던 4인 가구는 2017년 17.7%에서 2047년 7%로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1.4%로 줄어 찾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구는 2017년 399만8000가구에서 2047년 1105만8000가구로 2.8배 증가하고, 미혼 가구주도 331만2000가구에서 580만3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1

2047년 두 집 중 하나는 '노인가구'

여자 가구주, 비중 높아져...애초 결혼 한 적 없는 사람 더 많아져

2047년이 되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특별추계 : 2017~2047'을 발표했다. 추계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는 2017년 399만8000가구였으나 2047년에는 1105만8000가구로 총 2.8배가 증가한다.

이 기간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4%에서 49.6%로 늘어, 2047년에는 두 집 중 한 집은 '노인가구'가 되는 셈이다.

2017년 가구주 연령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50대(24.0%)지만 2047년에는 70대(21.4%)가 된다.

이같은 노인가구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빠르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노인 가구 비중은 한국·영국·일본이 각각 20.4%, 28.3%, 37.2%로 한국이 가장 낮고 일본이 가장 높다. 그러나 2040년에는 세 국가가 각각 44.2%, 37.2%, 44.2%로 조장된다. 가장 낮았던 한국은 가장 높은 일본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2047년이 되면 전체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비중이 2017년 30.4%보다 8.9%포인트(p)

늘어나 39.2%가 된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14.6%p 감소하고 미혼자 가구주는 9.1%p가 증가한다. 저출산과 함께 미혼 추세도 더 심해지는 것이다.

여자 가구주 구성비를 보면 2017년에는 배우자 사별이 31.5%로 가장 많고 배우자 있음(26.2%), 미혼(23.7%)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2047년이 되면 미혼(29.2%)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사별은 오히려 24.6%로 적어진다. 가구주들의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보다도 애초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